

# 세계의 빛을 담는 우리의 그릇 JOSK를 향한 짝사랑



글 이병하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편집위원장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1990년 국문학술지를 창간하고, 1997년 영문학술지를 창간한 한국광학회는 상대적으로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영문학술지 *JOSK*(*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는 2007년 SCIE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광학회 학술지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본다.

## 맞다, 행복한 고민이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논문이 지금까지만 해도 한 30편 정도 많이 투고되어서 이번 호는 23~24편이 게재될 것 같습니다. 게재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것은 논문이 너무 많이 투고되어 발생하는 즐거운 현상이지만 게재 편 수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면 호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한국광학회의 편집담당 사무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통상 호당 20편 정도 게재를 목표로 잡고 논문 투고 수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에만 골몰해 있는데, 원고교정까지 이미 다 끝나고 이번 호 게재를 기다리는 논문이 20편을 넘어섰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행복한 질문이다. 맞다, 행복한 고민이다! 논문 투고가 적었을 땐 학술지 내용을 떠나 책 제본조차 볼

품이 없어 고민했는데 투고가 넘치니 갑자기 이번 호만 뚱뚱하게 낼 수가 없으니 또 고민이다. 그래도 넘치는 고민이 부족한 고민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행복한 고민은 내가 편집위원장이로서 남다른 각고의 노력을 했거나 불세출의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JOSK*)가 SCIE에 등재가 된 것에서 대부분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내발행 학술지에 있어서 학술지가 SCI에 등재되었는지 아닌지는 논문 투고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거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가야 논문 투고 독려나 학술지 홍보 등과 같은 학술 외적인 일에 아까운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학술지 자체를 잘 꾸미는가 하는 본질에 매진할 수 있다.

## 2년 만에 맞본 SCIE등재의 기쁨

국내발행 학술지가 대부분 겪는 고난의 한 단면이겠지만 JOSK를 SCIE에 등재하기까지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 2005년 제4대 편집위원 박승한 교수(연세대)가 처음으로 톰슨사를 직접 방문하여 등재를 청원하였고 이후 줄곧 JOSK 신간호를 톰슨사에 발송하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톰슨사에선 아무런 대꾸가 없어 당대에선 꿈을 이루지 못하였고 2007년 황보창권(인하대) 제5대 편집위원장 대에 이르러서야 비록 SCI는 아니지만 SCIE에 등재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참고로 한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Korea)는 1990년 KAIST의 이상수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국물리학회에서 독립하여 설립이 되었고 같은 해에 장준성 교수(서울대)를 초대 편집위원장으로 하여 국문지인 『한국광학회지』를 창간하였다. 광학회 영문지는 JOSK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란 이름으로 1997년에 이재형 교수(서울대)를 편집위원장으로 격년간지로 창간되었고 2001년에 계간지로 중간되었다. JOSK는 2005년에 연구재단에 등재가 되었으며 2007년엔 SCIE, JCR, Scopus에 등재되었다. 특히, 2010년 제6대 이병호(서울대) 편집위원장의 헌신적 노력으로 미국 OSA Infobase (<http://www.opticsinfobase.org/JOSK>)에 오픈 액세스 저널로 등재되어 비로소 국제학술지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2009년부터 한국광학회는 보다 전문적인 학술지편집을 위하여 국문지와 영문지의 편집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JOSK의 impact factor는 2009년 1.278, 2010년 0.886, 2011년엔 1.090으로 전 세계 광학(optics) 카테고리 총 77개 저널 중 40위에 위치하고 있다. 출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훌륭한 출발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국문자와 영문자의 입장이 바뀐다

JOSK의 국문지는 창간 후 순조롭게 출발한 반면 후에 창간된 영문지는 한동안 논문 투고 수 저조로 큰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지금 영문지는 논문 투고 수 증가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 국문지는 투고수의 급격한 감소로 강제적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문지와 영문지 간 반전의 요인이 편집위원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에 있다면 개인의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불행히도 주요인은 이른바 논문 실적점수에 있는 것 같다. 학생이 졸업부터 교원 또는 연구원의 임용, 승진, 재계약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내용과 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그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 게재되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학술지가 국내나 국외나 그리고 SCI나 아니냐 등과 같은 형식이 배점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학술지의 성장이 왜곡되게 되었다고 본다. 국문지의 경우 해외에서의 인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SCI가 될 수 없는 것일 뿐인데도 국학술지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의 배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본인의 국문지 발표 논문을 가다듬어 배점이 월등하게 높은 영문지에 투고할 경우 ‘중복출판(이중게재)’이라는 아주 가혹한 철퇴를 맞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국문지에의 투고는 국내 학문발전과 후학양성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이 있거나,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키듯 한글도 우리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애국심이 있지 않고서는 감히 실행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내지는 꼭 필요하다. 우리의 것을 우리 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국내 학문발전과 후학양성에 크나 큰 저해 요인임

은 자명하다. 따라서 자기의 연구결과를 국내에 먼저 알리고 다시 국외에 알리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이차출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즉 양쪽 학술지 편집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같은 저자, 제목,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차출판이 가능하다.<sup>1)</sup>

한편, *JOSK*가 영문지로서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원고교정 및 편집의 전문화이다. 제2대 편집위원장 이범구 교수(서강대)께서 개인적 친분까지 동원하여 개인에게 영문교정을 부탁한 것은 어려운 시절 미담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아직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교정이나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JOSK*가 국제학술지로 제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영어자체에 대한 교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문학술지로서의 *JOSK* 스타일을 내걸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도록 Technical Writing 차원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편집담당 사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교정 및 편집 업무가 점차 개인보다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부서를 통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SCI등재를 위하여 몸으로 뛰리라

현재 *JOSK* 목전의 목표는 SCI등재다. 진짜 내실 있는 학술지를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효과가 가장 빠른 것

이 SCI등재라는 것에 슬프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우선 *JOSK* 최신호가 발행될 때마다 모든 회원에게 이메일로 출간 사실을 알리고 자동으로 학회지 홈페이지 최신호 난에 연결되게 하는 링크 작업을 준비 중이다. 또한 매 호마다 대표 논문을 선정하고 그 대표 그림을 표지에 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 표지논문에 대한 해설 기사를 한국광학회 소식지인 『광학과 기술』에 소개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다.

개인적으로 국문지인 한국광학회지의 초대 편집위원장이셨던 장준성 교수, 영문지인 *JOSK* 초대 편집위원장이셨던 이재형 교수, 두 분 모두 나의 은사이시며 학위 지도교수였다. 내 학문의 근간이 그 분들로부터 유래가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학술지 편집위원장 직까지 뒤따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광고 카피처럼 이왕 들어선 길, 비록 남은 임기가 코앞이지만, 은사들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편집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껍데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JOSK*의 발전을 위하여 *JOSK*를 SCIE에서 SCI로 승격 등재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보고자 한다. 정통 왕도의 길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선배 편집자들께서 그러하셨듯이 일단 *JOSK* 최신호를 들고 관련 기관들을 무작정 찾아가서 이 훌륭한 학술지를 한 번 보라고 눈 앞에서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논문 투고 수가 넘쳐난다면 이젠 한국광학회 회장님을 불러 *JOSK* 증간을 도모하겠다. 또한 편집담당 사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고 그동안 고군분투 애쓰신 임모모 편집담당 사무원의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담당직원의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

[출처] 과편협 뉴스레터 4호

1)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지는 않나, 먼저 발표한 국내 학술지의 편집인과 2차출판을 하고자하는 해외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편지를 보내 모두에게서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번역된 글을 투고하여 심사를 거쳐서 해외 학술지에 재차 발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학술지에 재차 발표하면 '중복출판'(text recycling이라고도 불립니다)이 되고, 이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